

언어발달 초기단계에 있는 자폐성 장애아동의 대화방법에 관한 연구: 차례지키기와 주제유지방법을 중심으로¹

조성숙
(동국대학교 강사)

조성숙. 언어발달 초기단계에 있는 자폐성 장애아동의 대화방법에 관한 연구. 『언어침각장애연구』, 2002, 제7권, 제3호, 55-76. 본 연구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언어발달 초기단계에 있는 자폐성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대화방법들 중에서 차례지키기와 주제유지방법을 중심으로 그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주로 한 단어 또는 두 단어를 조합하는 표현언어발달 초기단계에 있는 자폐성 장애아동(8명)과 정상발달 유아(8명)의 의사소통행동을 관찰하였다. 연구자와 아동이 1:1로 의사소통하는 상황을 1주일 간격으로 3회기에 걸쳐 관찰하는 반복측정방법을 이용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 차례지키기 유형 중 인접한 반응을 반복측정 분산분석한 결과, 집단간·회기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집단간 상호작용 효과는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회기가 지나면서 자폐아동 집단과 비장애아동 집단의 인접한 반응은 일관성 있고 유의하게 증가하지만 비장애아동 집단의 인접한 반응(발화)이 유의하게 더 많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주제유지를 하는 발화를 반복측정 분산분석한 결과, 집단간·검사회기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상호작용의 효과는 보이지 않았다. 즉, 회기가 지나면서 자폐아동 집단과 비장애아동 집단의 주제유지를 하는 반응은 일관성 있고 유의하게 증가하지만 비장애아동 집단의 주제유지 반응(발화)이 유의하게 더 많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 주제유지방법으로 정보를 더하지 않는 주제유지 방법을 반복측정 분산분석한 결과, 집단간·검사회기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집단간 상호작용은 없었다. 새로운 정보를 더하는 주제유지방법에 대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한 결과, 집단간·회기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핵심어: 언어발달 초기단계, 대화방법, 반복측정설계, 차례지키기, 주제유지방법

I. 서 론

정상발달 유아들은 영아기부터 주위사람과 의사소통하는 것이 관찰된다. 유아가 무엇인가 행동을 하면(예: 수유, 신체의 움직임, 울음 등) 함께 있는 주위사람은 반응을 한다. 이

¹ 본 연구에 인용된 경험적 자료는 본 연구자의 2001년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의 일부임.

때 주위사람은 유아에게 대화순서를 알려주며 동시에 유아가 경험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언어적 표현을 제공한다. 의미전달을 위하여 말을 하기 시작하는 단계에 도달하면 간단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다. 아동이 먼저 말을 시작하여 주위사람의 반응을 이끌어내거나, 주위사람이 먼저 시작하는 말에 아동이 반응을 하면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Bruner (1975)에 의하면 유아들은 이러한 상호 호혜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대화의 규칙들을 배운다고 하였다 (McLean, 1990에서 재인용).

그러나 자폐성 장애아동들은 주위사람과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언어사용의 화용론적(이를테면 대화하기) 장애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Fay & Schuler, 1989; Firth, 1989; Tager-Flusberg & Anderson, 1991).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하는 말을 이해하는 것 뿐만 아니라 몸짓, 목소리의 톤, 얼굴표정과 같은 비언어적인 단서들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과정을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말(utterance)만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맥락을 이해하면서 언어표현을 적절하게 연결해 나가야 한다. 또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상대방이 어른인지, 어린이인지 또는 친숙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서로 다르게 표현해야 한다. 그러나 자폐성 장애아동들은 주위사람들과 상호 작용하려는 의도가 매우 적고, 상호작용의 기술도 부족하다. 그리고 자신의 의사소통 의도를 표현하는 방법과 비언어적인 단서들을 통하여 파악되는 상대방의 감정상태를 읽는 능력이 매우 미숙하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의 언어표현을 하는 정상발달아동들에 비하여 화용론적인 측면들이(대화방법에서) 매우 뒤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국에서는 그동안 자폐아동의 대화방법이나 대화능력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다. Baltaxe (1977)는 자폐 청소년들의 대화기능을 조사한 결과, 자폐 청소년들은 청자의 역할과 화자의 역할을 번갈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재미있는 정보를 더한다든지, 상대방에게 정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과 같은 대화의 기본원리를 위반하는 경향을 보였다.

MaCaleb & Prizant (1985)에 의하면, 비교적 풍부한 어휘와 구문을 구사할 수 있는 자폐아동의 경우에도 화제(주제)를 끌어내거나 확장하는 데 의미있는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대화순서지키기는 손상되지 않았지만, 의사소통 의도를 반항어나 상투적인 언어로 표현하였고,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등 정상발달아동과는 다른 대화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자폐아동은 화제가 빈곤하고, 비언어적인 단서의 사용과 이해, 서로 관련성 있는 정보들을 적절한 수준으로 제공하는 것에서 심각한 수준의 어려움을 보였다(Loveland & Tunali, 1993; Sigman & Capps, 1997).

Hurtig, Ensrud & Tomblin (1982)은 자폐아동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들이 사용하는 정형화된 질문들을 분석하였을 때, 자폐아동들이 하는 질문들이 정보를 요구하는 기능보다는

사회적인 접촉을 시도하거나 유지하려는 의도를 더 많이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대화를 지속한다는 것은 단순히 발화(utterance)만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맥락을 이해하면서 대화의 주제를 유지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폐아동들은 어른이 개시하는 말에 반응을 하지 않거나 주제와 관련없는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대화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Tager-Flusberg & Anderson (1991)이 자폐아동과 다운증후군아동의 대화능력을 비교해 본 결과, 대화의 차례지키기와 같은 화용론의 특정한 면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새로운 주제를 소개하거나 대화주제에 새로운 정보를 더하는 주제유지방법을 사용하는 예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자폐성 장애아동들은 표현언어의 발달수준이 비슷한 정상발달아동과 대화방법에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언어발달기에 있는 비장애아동과 장애아동의 구문형태나 의미론적 규칙에 관한 연구들은 이루어졌지만(조명한, 1982; 김영태, 1998; 최은희·서상규·배소영, 2001), 대화방법과 같이 사회적 맥락 안에서의 언어사용과 관련된 화용론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자폐아동의 주요 언어장애 영역이 화용론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최근에 언어발달 초기단계의 언어적·비언어적인 의사소통행동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언어발달 초기단계에 있는 자폐아동의 대화방법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 단어나 두 단어를 조합하여 표현하는 언어발달 초기단계에 속하는 자폐성 장애아동들을 정상발달아동과 비교했을 때 대화의 차례지키기에서 차이가 있는지, 대화의 주제는 유지하는지, 대화의 주제를 유지하고 있다면 유지방법에서 차이가 있는지, 대화방법의 특성은 무엇인지 밝혀 보려고 한다. 본 연구 결과는 언어발달 초기단계에 있는 자폐성 장애아동의 대화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적절한 중재목표를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표현언어발달 수준이 한 단어나 두 단어 조합인 언어발달 초기단계(Cairns & Cairns, 1976)에 속하는 자폐성 장애아동과 표현언어발달 수준이 비슷한 생활연령 만 2세 이하인 정상발달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서울과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자폐성 장애아

동 8명과 비장애아동 8명으로 모두 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자폐성 장애집단의 생활연령은 3세 8개월부터 6세 6개월 사이에 속하는 취학전 아동들이며, 부모보고의 의하여 주로 한 단어 또는 두 단어를 조합하여 언어표현을 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제한하였다. 자폐성 장애아동 집단의 선정기준은 (1)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소아정신과에서 자폐성 장애로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2) 언어치료사로부터 주장애가 자폐성 장애이면서 표현언어수준이 한 단어나 두 단어조합으로 보고된 아동, (3) 자폐성 평정척도(CARS: 김태련·박량규, 1996) 평가결과가 30점 이상인 아동들이다. 이 외에도 아동수용-표현언어검사(REEL: 김영태, 1994)와 표현어휘목록(MCDI-K: 최은희·서상규·배소영, 2001)으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언어수준을 평가하였다.

비장애 집단의 생활연령은 12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속하는 정상발달아동들로 Cairns & Cairns (1976)가 생후 10개월에서 24개월까지의 시기를 언어발달초기단계로 분류한 기준을 따랐다. 이들은 표현언어수준이 한 단어 또는 두 단어 발화인 아동들로 남아 5명과 여아 3명을 선정하였다. 이들 중 3명은 어린이집에 다니며 5명은 어머니와 주로 가정에서 지내고 있었다. 대상아동 모두 부모나 교사에 의하여 '정상'이라고 보고된 아동들이다. 비장애아 집단의 기준은 (1) 한국텐버발육선별검사(K-DDST: 오가실, 1996) 결과 정상으로 판명되고, (2) 언어표현이 주로 한 단어 또는 두 단어 조합이며, (3) 시각 또는 청각 등의 감각장애나 행동장애를 보이지 않는 아동들이다. 또 아동수용-표현언어검사(REEL: 김영태, 1994)와 표현어휘목록(MCDI-K: 최은희·서상규·배소영, 2001)으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언어수준을 평가하였다.

두 집단 아동들은 모두 표현언어수준이 한 단어 또는 두 단어 발화인 아동들이다. 아동수용-표현언어검사(REEL: 김영태, 1994) 결과, 비장애 집단의 평균 언어연령은 21.5개월(범위는 12-30개월)이었고, 자폐성 장애집단의 평균언어연령은 25.5개월(범위는 18-36개월)로 나타났다. 표현 어휘수를 검사한 결과(MCDI-K: 최은희·서상규·배소영, 2001) 비장애 집단의 평균 어휘수는 140(범위는 10-300 이상)이고, 자폐성 장애집단의 평균 어휘수는 170(범위는 10 미만-300 이상)으로 나타났다.

2.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 비장애 집단 아동들이 연령이 낮고, 자폐성 장애집단 아동들은 의사소통 행동을 산출하고자 하는 동기가 매우 낮으므로 1회의 관찰만으로 신뢰로운 자료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1회기에 30분씩 1주일 간격으로 3회기에 걸쳐 의사소통행동을 관찰하는 반

복측정 설계방법(repeated-measures designs)을 이용하였다. 반복측정설계는 교육학이나 심리학에서 같은 연구대상자를 반복하여 측정하는 것으로 집단이 동질화되지 않았거나, 외재변수가 많아 통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합한 방법이다(변창진·문수백, 1999).

아동들의 대화방법을 알아보려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관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아동들의 대화방법을 알아보기 위하여 30분 동안 수행할 활동과제를 미리 정하여 의사소통행동을 표현하도록 유도하였다. 전반 15분 동안은 구조화된 활동을 실시하였고, 후반 15분 동안은 비구조화된 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아동이 연구자와 상호작용 하면서 보여주는 의사소통행동들은 모두 비디오로 녹화하였다. 녹화된 비디오 테이프의 내용은 바로 전사되었고, 전사한 자료에 기초하여 대화방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진행절차는 <표 - 1>과 같다.

<표 - 1> 연구의 진행절차

	사전검사	예비관찰	본 관찰		
			1회기	2회기	3회기
비장애 집단	○	○	○	○	○
자폐아동 집단	○	○	○	○	○
목적 및 활용	집단의 선정	· 의사소통활동과제의 적절성 · 제한시간 내 과제 수행여부 · 대화방법의 분석기준 마련	대화방법의 분석 (대화의 차례지키키, 주제유지방법 등)		

가. 예비관찰

본 관찰을 실시하기 전, 3명의 비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예비관찰을 실시하였다. 예비관찰은 1주일 동안(2001년 6월 4일부터 6월 9일까지) 서울의 어린이집에 입소하고 있는 12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속하는 남아 1명과 여아 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하여 초기언어발달단계에 있는 24개월 이전의 아동들이 좋아하는 놀이활동을 정하였다. 예비관찰의 목적은 (1) 활동과제의 적절성, (2) 선정된 과제들을 제한된 시간 내에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대화방법의 분석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예비관찰 결과, 구조화된 활동을 위하여 처음에 정하였던 과제(12가지 활동)들은 제한된 시간 내에 실행하기에는 너무 많았다. 따라서 아동들이 흥미를 보이지 않거나 실시하기 복잡한 과제는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본 관찰에서는 9가지 활동을 실시하기로 정하였다. 선정된 활동과제들이 연구대상아동들의 수준에

적절한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언어치료사와 발달심리전문가로부터 객관도를 검증받았으며, 의견 일치도는 85-95% 수준이었다.

나. 본 관찰

본 관찰은 2001년 6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하였다. 비장애아동 집단은 서울 시내에 있는 어린이집과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사전검사를 실시한 후, 일주일 간격으로 3회기에 걸쳐 본 관찰을 실시하였다. 자폐아동집단은 ○○치료연구소에서 자폐성 장애아동 집단의 선정기준에 맞는 아동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매 아동마다 일주일 간격으로 각각 3회씩 본 관찰을 하였다.

아동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대화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대상아동들의 나이가 어리며, 자폐아동의 경우에는 놀이활동에 대한 동기수준이 낮아 상호작용을 유도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많았다. 따라서 연구자는 30분 동안 아동이 의사소통행동을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을 미리 계획하였다.

전반부 15분 동안은 구조화된 활동과제를 실시하였고, 후반부 15분 동안은 비구조화된 활동을 실시하였다. 구조화된 활동이란 엄격성이나 융통성 없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아동으로 하여금 상호작용활동을 예측하기 쉽고 일관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구조화된 활동을 통하여서는 아동들로 하여금 특정한 언어표현의 사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스크립트를 제공하며, 비구조화된 활동을 통하여서는 다양한 언어형태와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상황을 고르게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Bailey & Wolery, 1992).

구조화된 활동을 위하여 준비한 장난감과 실시방법은 <표 -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풍선, 태엽 감아 움직이는 장난감, 비누방울, 유아용 도서(동물, 과일 책), 과자(젤리)가 들어 있는 투명한 통, 입구가 작은 통과 구슬, 미니카, 과일 미니어처, 공과 펄펄 인형을 준비하여 각각의 활동과제를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먼저 활동과제를 실시한 후 아동의 반응을 기다렸으며(3초), 아동이 반응을 보이면 5회 정도 반복하였다. 반응을 보이지 않는 행동에 대하여서는 중지하고 다른 과제를 실시하였다. 비구조화된 활동에서는 소꿉놀이, 찰흙놀이, 주차장놀이, 블록놀이 중에서 아동들이 선호하는 장난감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연구자는 아동의 상대자 역할을 하면서 모방과 촉구를 하기도 하고 아동이 행동하는 것을 말해주거나 설명하면서 아동의 행동에 자연스럽게 반응하였다. 아동이 자발적으로 놀이를 선택하지 않거나 상호작용의 의도를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자가 먼저 놀이를

시도하면서 촉구하였다.

<표 - 2> 구조화된 활동의 실시방법과 준비물

활동 내용	준비물
아동이 좋아하는 음식물이 들어있는 투명한 통을 아동이 닿지 않게 보이는 곳에 놓는다.	젤리나 과자, 투명한 통
먼저 비누방울을 불어 주고, 뚜껑을 닫고 기다린다.	비누방울
서로 다른 색깔의 풍선을 준비한 후, 풍선을 불어 묶지 않고 아동에게 준다.	색깔이 다른 풍선 2개
태엽 장난감의 태엽을 돌려주고 기다린다.	태엽으로 감아 움직이는 장난감 (자동차, 인형)
그림책을 펴고 함께 본다.	유아용 도서
공을 건네주다 다른 물건을 건네 본다.	공, 던질 수 있는 물건(예: 퍼펫인형)
올동하기(익숙한 것/낯선 것)	아침바람 찬바람, 곰 세 마리, 누구 키가 더 큰가
구슬을 입구가 작은 통에 옮겨 넣다가, 다른 물건을 중간에 넣는다.	입구가 작은 통, 구슬, 미니카, 과일 미니어처
아동이 싫어하는 물건을 준다.	이미 실시한 활동들 중에서 연구자가 기억해 두었다가 실시함.

* Bailey & Wolery (1992)의 의사소통의 유혹, Wetherby & Prizant (1993)의 CSBS 절차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수정하여 사용함.

3. 자료의 분석

분석의 첫 단계로 비디오 테이프에 녹화한 자료를 재생하면서 연구자가 한 말과 아동이 표현한 말들을 구분하여 <부록 - 1>의 전사기록표에 모든 내용을 전사하였다. 연구자와 아동이 상호작용하면서 표현하는 의사소통행동이나 상황적 맥락들도 모두 기록하였다. 전사기록표에 전사한 내용을 기초로 대화방법을 분석하면서 불분명한 것은 비디오를 보고 점검하였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1) 연구자나 아동이 주 상호작용대상자(연구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경우, (2) 비상호적인 의사소통행동들(예: 혼잣말이나 초점이 없는 행동 등), (3) 연구자와 다음활동을 협상하느라고 60초 이상 지속될 때, (4) 아동이 연구자와의 상호작용을 피하려고 하는 경우, (5) 비디오 녹화 전·후 60초 동안은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대화방법의 측정변인은 Bloom, Rocissano & Hood (1976)와 Tager-Flusberg &

Anderson (1991)이 사용하였던 변인들 중에서 한국어 기준에 적절하지 않은 변인들을 수정한 후 <표 - 3>과 같이 분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대화방법의 분석대상은 연구대상 아동들이 의사소통행동을 수집하는 30분 동안 의사소통을 의도로 산출한 발화들 중에서 대화의 차례지키기, 대화의 주제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대화의 주제유지방법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변인들은 전사기록표(<부록 - 1>)에 전사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대화방법의 분석기록표(<부록 - 2>)에 빈도를 기록하였다. 또한 같은 발화를 연속적으로 산출할 경우에는 초시계를 사용하여 20초마다 1회만 기록하였다.

<표 - 3> 대화방법의 측정변인

어른이 먼저한 말과 관련하여 반응을 보였는가?
① 인접한 반응(발화): 어른이 먼저한 말에 바로 반응한다.
② 비인접한 반응(발화): 아동이 먼저 말을 시작한다.
③ 불명료한 반응(발화): 아동이 한 말이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알아듣기 어렵다.
인접한 반응은 대화의 주제를 유지하는가?
① 인접한 반응(발화)이 대화의 주제를 유지한다
② 인접한 반응(발화)이 어른이 먼저 한 말의 주제와 관련이 없다
주제유지방법으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는가?
① 정보를 더하지 않는 주제유지방법
- 모방: 어른이 먼저한 말을 그대로 또는 일부를 따라한다.
- 대답(예/아니오)
- 틀에 박힌 구문(인사말, 광고, 동요의 일부분)
- 재부호화: 형식을 약간 변경하여 어른이 한 말을 반복한다.
- 질문에 대한 단순한 대답(예: 무슨 색이니? / 빨강)
② 새로운 정보를 더하는 주제유지방법
- 확장: 어른이 먼저 한 말의 주제와 내용에 정보를 더한다.
- 교대하기: 어른이 먼저 한 말의 내용에 반대되는 정보를 더한다.
- 설명하기: 새로운 내용을 소개하거나 부연하여 설명한다.

4. 대화방법의 평가방법

가. 대화의 차례지키기

대화의 차례지키기의 평가방법은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째로 어른이 먼저한 말에 아동이 반응하는 경우는 인접한 반응(발화)으로, 둘째로 아동이 먼저 말을 시작하

는 경우는 비인접한 반응(발화)으로, 아동이 한 말이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알아듣기 어려운 경우에는 불명료한 반응(발화)으로 구분하여 <부록 - 2>에 그 빈도를 기록하였다.

나. 대화의 주제유지 여부

아동이 어른이 먼저한 말에 반응하는 인접한 반응(발화)중에서 대화의 주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와 대화의 주제와 관련이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분석기록표(<부록 - 2>)에 빈도를 기록하였다.

다. 대화의 주제유지방법

주제유지방법은 주제를 유지하고 있는 반응(발화)이 새로운 정보를 더하는 주제유지방법과 정보를 더하지 않는 주제유지방법으로 구분하였다. 새로운 정보를 더하는 주제유지방법으로는 확장, 교대하기, 설명하기를 포함하였다. 정보를 더하지 않는 주제유지방법에는 모방, 대답, 틀에 박힌 구문(인사말, 광고, 동요의 일부분), 재부호화, 질문에 대한 단순한 대답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부록 - 2>에 빈도를 기록하였다.

5. 자료처리방법

관찰자간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자와 언어병리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을 연구자의 관찰자로 선정하여 5회기에 해당하는 테이프를 임의로 추출하여 비디오 녹화자료를 전사하였다. 두 관찰자간 전사(transcribed)의 신뢰도 수준은 약 85% 일치율을 보였다. 대화방법의 변인에 대한 관찰자간 신뢰도를 산출하기 위하여, 변인들을 분석하기 전에 연구자는 연구자 이외의 관찰자에게 각각의 변인들에 대하여 측정기준들을 자세히 설명한 후 독립적으로 계산한다. 신뢰수준은 각각 .83-.91 까지 일치수준을 보였다. 관찰자간 신뢰도의 일치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재분석을 통하여 이견을 조정하였다. 신뢰도를 구하는 방법은 본 연구자와 또 한 명의 관찰자가 일치한 반응의 수를 일치한 반응의 수와 일치하지 않은 반응의 수를 더한 수로 나누어 100을 곱하여 계산하였다.

자료의 처리는 SPSS 통계프로그램(version 11.0)을 사용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회기별 집단간의 차이와 집단 내 회기별 차이를 검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화 차례지키기 차이

연구대상 아동이 의사소통을 하면서 대화의 차례를 지키는 유형을 분석하였다. 아동이 상대방이 건네는 말에 반응을 보이는 인접한 반응(발화), 어른이 먼저한 말과 관계 없이 아동이 먼저 하는 비인접한 반응(발화), 그 외에 아동이 한 말을 알아듣기 어려운 경우는 불명료한 반응(발화)으로 구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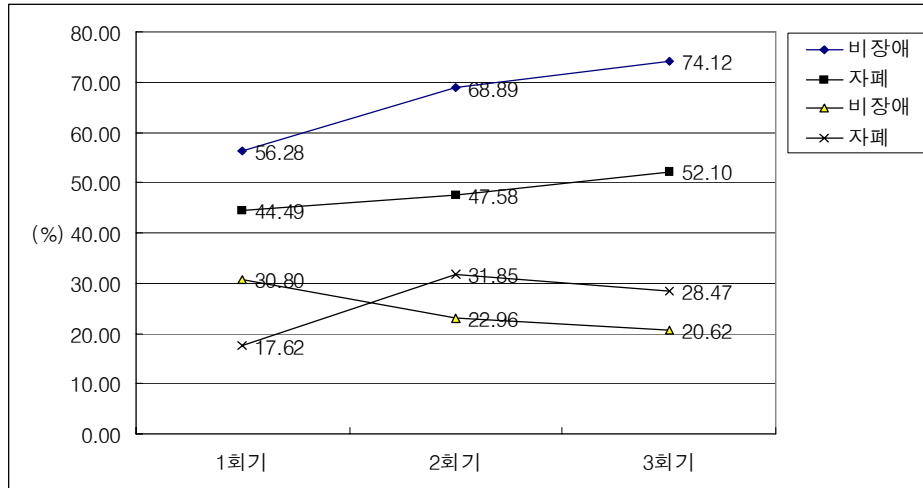
연구대상 아동의 대화의 차례지키기의 유형별 합계와 비율은 <표 - 4>와 <그림 - 1>과 같다.

<표 - 4> 차례지키기의 유형별 합계와 비율

		1회기			2회기			3회기		
		인접	비인접	불명료	인접	비인접	불명료	인접	비인접	불명료
비 장 애	빈도합계	179	98	41	237	79	28	295	82	21
	평균	25.57	14.00	5.86	33.86	11.29	4.00	42.14	11.71	3.00
	표준편차	15.64	10.08	4.30	19.91	4.86	4.69	24.86	5.50	2.94
	비율(%)	56.28	30.8		68.89	22.96		74.12	20.6	
자 폐 아	빈도합계	101	40	86	118	79	51	161	88	60
	평균	14.43	5.71	12.29	16.86	11.29	7.29	23.00	12.57	8.57
	표준편차	9.98	4.72	7.59	7.82	7.70	7.97	10.49	10.37	3.87
	비율(%)	44.49	17.62		47.58	31.85		52.1	28.49	

인접한 발화량을 비교한 결과, 비장애 집단은 1회기 179 (56%), 2회기 237 (69%), 3회기 295 (74%)이고, 자폐아 집단은 1회기 101 (44%), 2회기 118 (48%), 3회기 161 (52%)로 비장애 집단의 인접한 발화량은 자폐아 집단의 인접한 발화량보다 더 높은 빈도와 비율을 보였다. 또한 두 집단 모두 회기가 지나면서 인접한 발화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이 먼저 말을 시작하는 비인접한 발화량을 비교해 본 결과, 비장애 집단은 1회기 98 (31%), 2회기 79 (23%), 3회기 82 (21%)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감소하였다. 그러나 자폐아 집단의 비인접한 발화량은 1회기 40 (18%), 2회기 79 (32%), 3회기 88 (29%)로 비장애 아동 집단에 비하여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 1> 인접반응비율과 비인접반응비율의 회기별 변화

인접한 발화의 회기별 집단간 차이와 집단 내 회기별 차이를 검증한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는 <표 - 5>와 같다. 상대방이 건네는 말에 반응을 하는 인접한 발화량은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 = 3.39, p = .069$), 검사회기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 = 10.00, p < .01$). 그러나 회기별과 집단간(비장애/자폐)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 5> 차례지키기 방법 중 인접한 발화의 반복측정 분산분석결과

분산원 (Source)	자유도 (DF)	자승화 (SS)	평균자승화 (MS)	F	p
비장애/자폐집단 개인간 오차	1 12	2608.59 7841.71	2608.59 653.47	3.99	.069
검사회기 회기×집단 개인내 오차	2 2 24	1114.33 120.05 1136.29	557.17 60.02 55.68	10.00 1.08	.001* .356

* $p < .01$

이러한 결과는 <표 - 6>과 <그림 - 1>에서 볼 수 있듯이 검사회기가 반복되면서 자폐아동 집단의 인접한 발화량이나 비장애 집단의 인접한 발화량이 일관되고 유의하게 증가

하지만, 비장애 집단의 인접 발화량이 유의하게 많은 것을 의미한다.

2. 대화의 주제유지 여부

인접한 반응(발화) 중에서 대화의 주제를 유지하고 있는 발화와 주제유지와 관련이 없는 발화의 빈도와 비율은 <표 - 6>과 같다.

<표 - 6> 대화의 주제유지의 여부

		1회기		2회기		3회기	
		주제유지	관련없음	주제유지	관련없음	주제유지	관련없음
비 장 애	빈도합계	161	18	205	32	241	54
	평균	23.00	2.57	29.29	4.57	34.14	8.00
	표준편차	13.94	2.44	18.51	4.57	34.14	8.00
	비율(%)	89.9	10.1	86.5	13.5	81	19
자 폐	빈도합계	78	23	92	26	119	42
	평균	11.44	3.29	13.14	3.71	17.00	6.00
	표준편차	8.11	4.03	5.58	3.50	8.93	5.86
	비율(%)	77.2	22.8	77.9	22.1	73.9	2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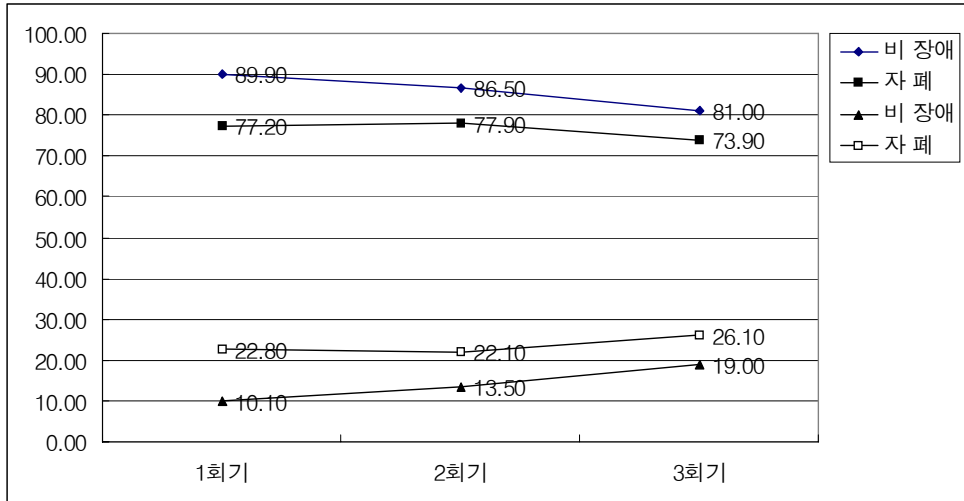
비장애아 집단은 인접한 반응(발화)들 중 주제 유지를 하는 발화의 빈도는 1회기 161 ($M = 23$), 2회기 205 ($M = 29.29$), 3회기 239 ($M = 34.14$)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증가하였다. 그러나 인접한 반응(발화) 중에 주제유지를 하는 발화의 비율을 보면, <그림 -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회기 89.9%, 2회기 86.5%, 3회기 81%로 점차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폐아동 집단의 주제유지를 하는 발화는 1회기 78 ($M = 11.14$), 2회기 92 ($M = 13.14$), 3회기 119 ($M = 17$)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로 증가하고 있지만, 인접한 반응중에 주제유지 하는 발화의 비율은 <그림 - 2>와 같이 1회기 77.2%, 2회기 77.9%, 3회기 73.9%로 회기 별 변화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접한 반응(발화) 중 주제를 유지하는 반응을 분산분석한 결과는 <표 - 7>과 같다.

비장애아동 집단과 자폐아동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F = 4.50, p < .05$), 검사회기에 따른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 5.551, p < .01$). 그러나 회기별과 집단간(비장애/자폐) 상호작용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비장애아 집단과 자폐아 집단간에 대화의 주제유지 능력이 일관되게 다르며, 회기가 지나면서도 이러한 차이는 변화없이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 2> 대화의 주제유지 여부에 따른 회기별 변화

<표 - 7> 대화의 주제유지 분산분석결과

분산원 (Source)	자유도 (DF)	자승화 (SS)	평균자승화 (MS)	F	p
비장애/자폐집단 개인간 오차	1 12	2377.524 6332.38	2377.524 527.698	4.50	.05*
검사회기 회기×집단 개인내 오차	2 2 24	505.86 55.190 1093.619	252.929 27.595 45.567	5.551 .606	.01* .55

* $p < .01$, ** $p < .05$

3. 주제유지 방법의 차이

주제유지 반응(발화)은 정보를 더하지 않는 방법과 새로운 정보를 더하는 방법으로 나누었다.

<표 - 8>은 정보를 더하지 않는 주제유지방법(모방, 예/아니오(대답), 틀에 박힌 문구, 재부호화, 질문에 대답하는 것)의 유형별 합계와 비율을 제시한 것이다. <표 - 8>과 <그

림 -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비장애 집단은 정보를 더하지 않는 주제유지방법의 사용 비율이 1회기 73.2%, 2회기 68.3%, 3회기 63.5%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정보를 더하지 않는 하위범주들 중 어른이 먼저 한 말에 대하여 ‘예/아니오’로 대답할 때가 가장 많았고(1회기: 48, 2회기: 81, 3회기: 64), 질문에 대한 반응하기(1회기: 14, 2회기: 20, 3회기: 27)를 주로 많이 사용하였다.

자폐아동 집단은 정보를 더하지 않는 주제유지방법의 비율이 1회기 98.6%, 2회기 99%, 3회기 95%(<그림 - 3>)로 주로 정보를 더하지 않는 주제유지방법을 사용하였다. 하위범주들 중에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어른이 먼저 한 말을 그대로 또는 부분적으로 모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1회기: 44, 2회기: 58, 3회기: 85), 다음으로 광고문구나, 동요의 구절, ‘고마워’, ‘안녕’과 같은 틀에 박힌 반복적인 문구로 표현하였다(1회기: 15, 2회기: 15, 3회기: 21).

<표 - 8> 주제유지방법: 정보를 더하지 않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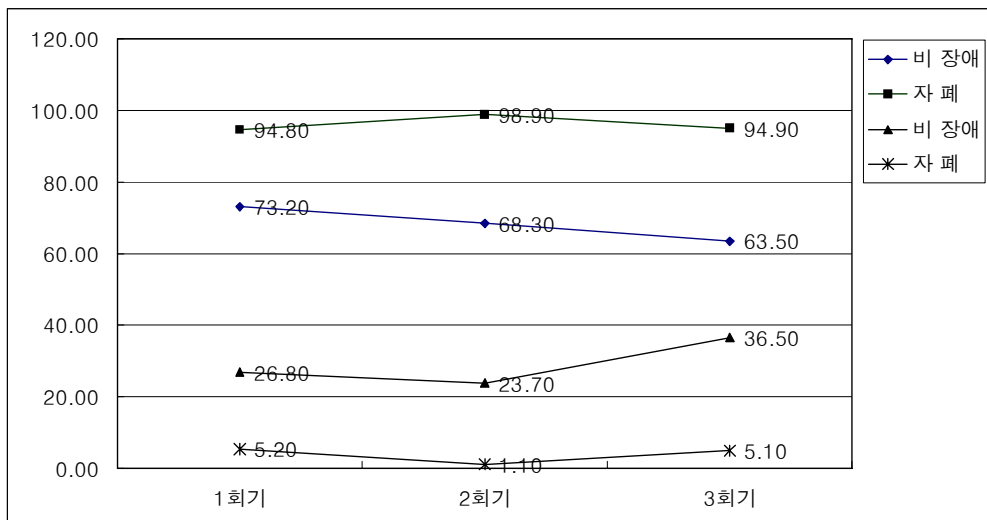
	1회기					2회기					3회기						
	Im	Y/N	Ro	Re	Wh	Im	Y/N	Ro	Re	Wh	Im	Y/N	Ro	Re	Wh		
비	빈도	합계	19	48	10	26	15	9	81	13	17	20	26	64	14	22	27
장	평균		2.71	6.86	1.43	3.57	2.00	1.29	11.5	1.86	2.43	2.86	3.71	9.14	2.00	3.14	3.86
에	표준편차		3.04	4.78	1.99	2.64	1.83	1.38	6.00	2.34	2.76	3.08	4.35	4.49	1.41	2.34	3.02
	비율(%)			73.2					68.3					63.5			
자	빈도	합계	44	3	15	4	8	58	5	15	2	11	59	10	21	9	14
폐	평균		6.29	.43	2.14	.57	1.14	8.29	.71	2.14	.29	1.57	8.43	1.43	3.00	1.29	2.00
	표준편차		7.04	.53	2.79	.79	1.35	5.02	.95	2.19	.49	1.27	5.68	2.15	2.45	.95	1.15
	비율(%)			94.8				98.9					94.9				

Im: Imitation (모방), Y/N: Yes or No (예 또는 아니오), Ro: Routine (틀에 박힌 문구),
Re: Re-code (재 부호), Wh: Wh-response (질문에 대한 반응)

새로운 정보를 더하는 주제유지방법(확장(expansion), 교대(alternation), 상세한 설명(expatiation))의 유형별 합계와 비율은 <표 - 9>와 같다. <표 - 9>와 <그림 - 3>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비장애집단은 회기별로 그 비율이 30%, 32%, 36%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증가하였고, 주제유지방법으로 확장, 교대, 설명하기를 고르게 사용하였다. 자폐아동 집단은 새로운 정보를 더하여 주제를 유지해 가는 비율이 1-5%로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 9> 주제유지방법: 새로운 정보를 더하는 방법

		1회기			2회			3회		
		확장	교대	설명	확장	교대	설명	확장	교대	설명
비 장 애	빈도 합계	15	11	17	22	27	16	38	24	26
	평균	2.00	1.43	2.14	3.14	3.86	2.29	5.43	3.43	3.71
	표준편차	1.83	1.81	3.53	4.53	4.38	4.35	10.10	2.44	5.74
	비율(%)		26.8			31.7			36.5	
자 폐	빈도 합계	4	0	0	0	1	0	4	2	0
	평균	1.14	0	0	0	.14	0	.57	.29	0.00
	표준편차	1.35	0.00	0.00	0	0	0	1.51	.49	0.00
	비율(%)		5.2			1.1			5.1	



<그림 - 3> 주제유지방법의 회기별 변화량

정보를 더하지 않는 주제유지방법을 반복측정 분산분석한 결과는 <표 - 10>과 같다. 비장애아동 집단과 자폐아동 집단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검사회기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 = 4.439, p < .05$).

<표 - 11>은 새로운 정보를 더하는 주제유지방법에 대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장애아 집단과 자폐아동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F = 3.962, p = .07$), 회기별로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 = 2.729, p = .086$).

<표 - 10> 정보를 더하지 않는 주제유지방법 분산분석결과

분산원 (Source)	자유도 (DF)	자승화 (SS)	평균자승화 (MS)	F	p
비장애/자폐집단 개인간 오차	1 12	390.095 1714.190	390.095 142.849	2.731	.124
검사회기 회기×집단 개인내 오차	2 2 24	224.333 4.619 606.381	112.167 2.310 25.266	4.439 0.91	.023** .913

** $p < .05$

<표 - 11> 새로운 정보를 더하는 주제유지방법 분산분석결과

분산원 (Source)	자유도 (DF)	자승화 (SS)	평균자승화 (MS)	F	p
비장애/자폐집단 개인간 오차	1 12	868.595 2630.476	868.595 219.206	3.962	.07
검사회기 회기×집단 개인내 오차	2 2 24	66.619 43.762 292.952	33.310 21.881 12.206	2.729 1.793	.086 .188

V. 요약 및 논의

초기언어발달단계에 있는 정상발달유아들은 주로 한 단어 또는 두 단어를 조합하여 의미를 전달하면서,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시기에 대화의 형태는 주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이나, 방금 끝난 사건에 관하여 그들이 알아차린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한 단어나 두 단어를 조합하여 표현하기 시작하고, 동시에 대화방법을 터득하기 시작한다(이승복, 1994; Lund & Duchan, 1993). 그런데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초기언어발달단계에 있는 자폐아동의 대화방법은 비슷한 언어발달단계에 속하는 정상발달유아들과 상당히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연구문제인 대화의 차례 지키기에서는 자폐아동 집단은 상대방이 한 말에 반

응을 보이는 인접한 반응(발화)이 많았고, 회기가 진행되면서 인접한 반응은 점점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정상발달아동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검사회기별로 이러한 차이는 줄어들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의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자폐아동이 대화의 차례지키기 능력은 비장애 집단과 다르지 않다고 한 Paccia, Crucio & Sacharko (1981), Tager-Flusberg & Anderson (1991)의 연구와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인 자폐아동 집단은 선행연구의 대상아동들보다 표현언어수준이 낮은 집단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폐아동의 경우에도 표현언어 수준이 좋아지면서 대화의 차례지키기는 향상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인접한 반응들 중에서 주제유지 여부를 비교한 결과, 자폐아동은 주제유지를 하지 않는 발화량보다는 주제유지를 하는 발화량이 더 많았다. 그러나 주제를 유지하고 있는 발화량을 분산분석한 결과는 집단간·검사회기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회기가 지나면서 자폐아동 집단과 비장애아동 집단의 주제유지 반응은 일관되고 유의하게 증가하나, 비장애아동 집단의 주제유지 반응이 유의하게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대화를 지속하기 위하여서는 주제를 유지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자폐아동과 대화를 하다보면 흔히 발견되는 것이 반향어이다. 자폐아동들은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수준 높은 인지적 요구를 받을 때 보상적인 언어 전략으로 반향어를 사용한다(Rollins, 1994). 또한 많은 자폐아동들은 대화상대자와 상호작용을 시도하기 위하여 이미 기억하고 있는 틀에 박힌 말과 반향어에 의존한다. 본 연구에서 관찰한 자폐아동 중에도 연구자가 말을 걸거나, 또는 아동이 먼저 말을 하려는 경우에 “제발 줘” 또는 “살려줘”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아동이 있었다. 이와 같이 자폐아동들은 어른이 먼저한 말에 이상한 형태(예를 들어 반향어와 같이)로 반응하거나 대화의 주제와 관련이 없는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대화를 지속하는 데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된다. Crucio & Paccia (1987)에 의하면 자폐아동이 주제유지를 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으로 언어적인 환경을 들었다. 예를 들어 어른이 먼저한 말과 관련하여 ‘예/아니오’와 같이 간단한 대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자폐아동들은 훨씬 더 대화의 주제를 잘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한다.

세 번째 질문인 주제유지방법으로 자폐아동들은 새로운 정보를 더하는 방법보다 정보를 더하지 않은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검사회기 동안 변화가 없었다. 반면에 비장애아동 집단은 자폐아동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정보를 더하는 방법보다 정보를 더하지 않은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였으나, 회기가 지나면서 새로운 정보를 더하는 방법의 사용이 점점 증가하였다. 정보를 더하지 않는 주제유지 방법을 반복측정 분산분석한 결과, 집단간·검사회기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집단간 상호작용은 없었다. 새로운 정보를 더하

는 주제유지방법을 반복측정 분산분석한 결과, 집단간·회기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상호작용의 효과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새로운 정보를 더하든 더하지 않든 두 집단은 주제 유지방법에 차이가 있으며, 회기가 반복되어도 이러한 차이는 계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이는 주제유지방법의 하위범주를 살펴보았을 때 더욱 두드러졌다. 자폐아동 집단은 주제유지 방법들 중에서 상대방이 한 말에 ‘예’ 하고 대답을 하거나(부정하기 위하여 ‘아니오’로 대답하는 경우는 없었다), 상대방이 한 말을 그대로 또는 부분적으로 모방하였다. 또는 “먹어봐”(음식을 요구하면서) 또는 “들려줘”(물건을 요구하면서)와 같이 전형화된 표현으로 대화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비장애아동집단도 상대방이 한 말에 대하여 ‘예’ 또는 ‘아니’로 대답하는 경우와, 질문에 대하여 반응하는 경우가 많았다. 동시에 확장, 교대, 설명하기와 같이 새로운 정보를 더하는 주제유지방법도 회기가 지나면서 점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Hurtig, Ensrud & Tomblin (1982)이 자폐아동들이 하는 질문들은 정보를 요구하는 기능보다는 사회적인 접촉을 시도하거나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더 많았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하겠다. 자폐아동들은 시간이 지나도 새로운 정보를 더하여 주제를 유지해 가는 확장, 교대로 하기, 부연 설명하는 방법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들은 새로운 정보를 알아내기 위하여 질문을 하는 일이 없었고, 새로운 정보를 더하는 방법도 5% 이하로 회기가 지나도 이러한 경향은 변화가 없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Tager-Flusberg (1993)가 자폐아동들은 대화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언어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발견하는 중요한 수단인데, 자폐아동들은 요구하기와 같은 도구적인 기능을 위한 언어사용에는 비교적 능숙하지만, 대화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매우 제한된 방법만 습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발달 초기단계에 있는 자폐아동들은 대화의 차례지키기, 대화의 주제유지능력이 부족하였고, 새로운 정보를 더하는 경우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대화를 하고 있는 주제에 새로운 정보를 더하여 대화의 범주를 발달시켜나가지 못한다는 것은 자폐아동들이 사람들과 정보를 교환하면서 서로 다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므로 대화능력에서 의사소통장애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 관찰한 자폐아동들은 대화능력이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며, 연구대상아동도 적기 때문에 자폐성 장애 아동의 대화방법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하지만 자폐성 장애아동들의 일상생활에서 언어사용과 가장 밀접한 화용론적 측면 중에서, 대화능력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초기언어발달 단계의 자폐성 장애아동의 대화방법의 경향성과 차이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앞으로 다양한 언어발달수준에 있는 자폐아동의 대화방법에 관한 지식을 확대한다면, 자폐성 장애

에아동의 대화방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도방법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그 대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집된 집단의 대상자 수가 적으므로 결과의 해석에 제한점을 갖는다. 따라서 앞으로 더 많은 연구대상자의 관찰을 통한 경험적인 지지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후속연구에서는 횡단적, 종단적 연구를 통하여서 다양한 언어발달단계에 속하는 자폐성 장애아동의 대화방법에 관한 장기적 발달경향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대상아동들의 표현언어수준은 표준화된 검사를 통하여 측정하지 못하고 부모나 언어치료사의 보고에 의존하여 대략적인 수준을 근거로 하였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하게 언어언령을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김영태(1994). 『구어-언어진단검사』. 대구: 한국언어치료학회.
- 김영태(1998). 한국 2-3세 아동 문장의 의미론적 분석. 『언어청각장애연구』, 3(1), 20-34.
- 김태련·박랑규(1996). 『아동기 자폐증 평정척도』. 서울: 도서출판 특수교육.
- 변창진·문수백(1999). 『사회과학연구를 위한 실험설계·분석의 이해와 활용』. 서울: 학지사.
- 오가실(1996). 『한국텐버발달 선별검사』. 서울: 국어문화사.
- 이승복(1994). 『어린이를 위한 언어획득과 발달』. 서울: 정민사.
- 조명환(1982). 『한국아동의 언어획득연구: 책략모형』.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조성숙(2001). 자폐성 장애아동의 의사소통행동 특성에 관한 연구: 언어발달 초기단계의 화용론적 특성.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은희·서상규·배소영(2001). 1;1-2;6세 한국아동의 표현어휘 연구. 『언어청각연구』, 6(1), 1-16.
- Baltaxe, C. (1977). Pragmatic deficits in the language of autistic adolescents.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2, 176-180.
- Bailey, D. B. & Wolery, M. (1992). *Teaching infants and preschoolers with disabilities* (2nd ed.). New York: Macmillan.
- Bloom, L., Rocissano, L. & Hood, L. (1976). Adult-child discourse: Developmental interaction between information processing and linguistic knowledge. *Cognitive Psychology*, 8, 521-552.
- Bruner, J. (1975). The ontogenesis of speech act. *Journal of Child Language*, 2, 1-19.
- Cairns, H. S. & Cairns, C. E. (1976). *Psycholinguistics: A cognitive view of language*.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Curcio, F. & Paccia, J. (1987). Conversation with autistic children: Contingent relationship between features of adult input and children's response adequacy.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17, 81-93.

- Fay, W. & Schuler, A. (1989). *Emerging language in autistic children*. Baltimore: University Park Press.
- Frith, U. (1989). *Autism: Explaining the enigma*. Cambridge, MA: Blackwell.
- Hurtig, R., Ensrud, S. & Tomblin, J. (1982). The communicative function of question production in autistic children.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12, 57-69.
- Loveland, K. & Tunali, B. (1993). Narrative language in autism and the theory of mind hypothesis: A wide perspective. In S. Baron-Cohen, H. Tager-Flusberg & D. Cohen (Eds.), *Understanding other minds: Perspective from aut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und, N. J. & Duchan, J. F. (1993). *Assessing children's language in naturalistic contexts* (3r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McCaleb, P. & Prizant, B. M. (1985). Encoding of new versus old information by autistic children.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Disorders*, 50, 230-240.
- McLean, L. (1990). Communication development in the first two years of life: A transactional process. *Zero to Three*, 11, 13-19.
- Paccia, J., Crucio, F. & Sacharko, G. (1981). A comparison of discourse features in normal and autistic language. Paper presented at the Boston University Conference on Language Development, Boston.
- Rollins, P. R. (1994). A case study of the development of language and communication skills for six children with autism. Thesis, Harvard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 Sigman, M. & Capps, L. (1997). *Children with autism: A developmental perspectiv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Tager-Flusberg, H. & Anderson, M. (1991). The development of contingent discourse ability in autistic childre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2(7), 1123-1134.
- Tager-Flusberg, H. (1993). Dissociations in form and function in the acquisition of language by autistic children. In H. Tager-Flusberg (Ed.), *Constraint on language acquisition*. Hillsdale, NJ: Erlbaum.
- Wetherby, A. & Prizant, B. (1993). *Communication and Symbolic Behavior Scale*. Chicago: Riverside Publishers.

<부록 - 1>

전 사 기 록 용 지

상 황 (맥 락)	아동의 행동·표현언어

* 아동의 발화 / / * 교사의 발화 ()

<부록 - 2>

대화방법 분석 기록표

		하위범주			비고
			기호	빈도	
차례 지키기		인접한 발화			
		비인접한 발화			
		불명료한 발화			
주제유지 유·무		주제 유지			
		주제 유지하지 않음			
주제 유지 방법	정보를 더하지 않는 방법	모방			
		예/ 아니오			
		상투적인 문구			
		재부호화			
		질문에 대한 대답			
	새로운 정보를 더하는 방법	확장			
		교대			
		상세한 부연			

ABSTRACT

A Study on the Discourse of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 at the Early Stage of Language Development

Seong Sook Jo (Donggu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differences in discourse behaviors between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and normally developing children at the early language developmental stage. The research method included observation of the communicative behaviors of 8 Korean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and 8 normally developing Korean children (13 months - 24 months). A set of activity tasks was designed to observe children's communicative behaviors face-to-face. Each observation session lasted for 30 minutes, once a week for three weeks.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were as follow: (1) In discourse turn-takings, adjacent utterances were more frequently observed than non-adjacent utterances in the group of normal children, the frequency increasing with the passage of time. The same tendency of increase of the adjacent utterances was also found in the autistic children, albeit with less numbers than those of the normal children. With respect to the topic-relatedness of the adjacent utterances, the frequency of topic-related responses increased with time for both normal and autistic children. (3) In terms of topic maintenance, both groups used more of the non-informative, non-adding information more than the informative, adding information. However, the normal children gradually gained the ability to add new information, whereas the autistic children hardly did.

Key Words: early language developmental stage, repeated measures analysis, discourse turn taking, topic maintenance method

▶ 게재 신청일: 2002년 9월 30일

▶ 게재 확정일: 2002년 11월 10일

▶ 조성숙 (제 1 저자): 동국대학교 강사, e-mail: josso529@hanmail.net